



YUANTA YESG

01 이슈 포커스

- EU 탄소국경세(CBAM) 대상 품목, 규제 조건 확대
- 지속가능성, 기후위험 관리 의무화에 나서는 선진국
- 투자심리 위축되는 글로벌 ESG 주식펀드
- 글로벌 ESG 펀드 성과

02 ESG ETF: 유형별 자금 동향

03 Global Fund/ETF 성과 분석

04 국내 ESG 종목 현황

05 뉴스&정책 동향

06 ESG 키워드 Study: 모피 반대 운동

07 주간 ESG 성과 & 자금 동향

EU 탄소국경세(CBAM) 대상 품목, 규제 조건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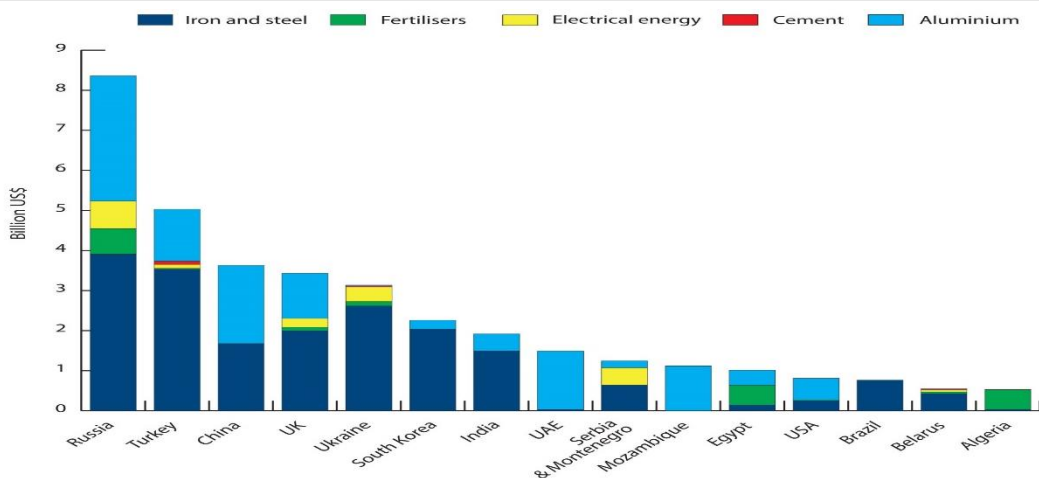
EU는 무상할당의 단계적 폐지를 포함한 탄소배출권거래제 개편을 위한 논의를 최종적으로 마무리했다. 탄소 국경조정제도는 EU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다른 지역에서 수입하는 제품 간의 탄소 배출 비용 격차를 줄이기 위해 수입품에 탄소 배출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이다. EU보다 탄소 배출 비용을 적게 지불하는 지역에서 물품을 들여온 수입업자는 탄소세에 해당하는 CBAM 크레딧을 구매해야 EU내 통관이 가능하다.

적용 대상 품목은 기존에 대상으로 올라와있던 철강과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력 외에 수소까지 포함되며 예상 외의 결과가 확인되었다. 또한 특정 전구체, 나사 및 볼트 등 다운스트림 제품까지도 확대되었다. 배출 기준을 통한 분류체계에서도 Scope1 뿐만 아니라 Scope2 까지 포함되었다. 단순히 생산 과정에서 포착되는 Scope1 뿐만 아니라 판매 단계에서의 Scope2 배출량이 규제 조건 대상에 포함되었다.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는 내년 10월 시행되지만 시장 차별 조치와 충격을 고려하여 유예기간을 두었다. 유예기간 중에 수입업자는 탄소 배출량 보고만 하고 CBAM 크레딧은 당장 구매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2026년 까지 유예가 확정된 만큼 현실적인 준비가 시급해 보인다.

한편 유예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EU는 유기화학제품과 플라스틱에 대한 이 제도 적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U는 온실가스 간접배출량 측정을 위한 방법론을 마련하고 더 많은 다운스트림 제품으로 대상을 확대할지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사실 EU의 이번 조치는 이미 상당부분 예견된 내용이다. 다만, 적용 품목이 확대되고 측정 방법에 있어서도 Scope2가 포함된 점은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온다. 국가간 분쟁 소지가 크고, 관세 부과에서 객관성을 확보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CBAM 규정이 적용되는 제품, 국가별 수출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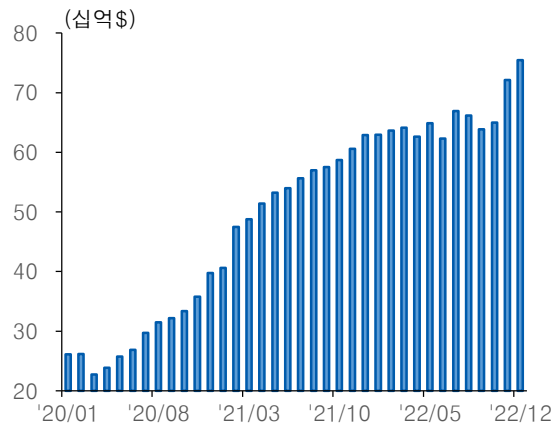
자료: CER INSIGHT,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지속가능성, 기후위험 관리 의무화에 나서는 선진국

연준은 자산규모 1,000억 달러 초과 상업은행의 기후 리스크 관리 원칙을 도입하기로 하고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중에 있다. ECB에 이어 연준도 시중에 ESG 관리를 적용시키고 있다.

연준은 상업 은행의 감사, 리스크 관리에서 기후 관련 금융 리스크를 고려하여, 통상적인 스트레스 테스트에 기후 관련 시나리오 분석을 추가하도록 대형 은행에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대형 상업 은행의 경우 대손충당금을 쌓을 때도 기후리스크를 고려하도록 할 방침이다.

지속가능성 채권 ETF AUM 추이



자료: Bloomber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ECB는 이미 2020년에 은행의 기후와 환경 관련 리스크 대응 지침을 제시한 바 있다. 지난 10월에는 2024년 말까지 준수하도록 규제 타임라인을 제시하였다. 선진국 상업은행은 규제 확대와 적용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에 나서고 있다. 바클레이즈는 2030년 지속가능금융 목표치를 종전 1,500억 달러에서 1조 달러로 늘렸으며, HSBC 또한 2030년 지속가능금융 목표를 1조 달러로 제시하였다. 또한 JP모건은 2조 5,000억 달러 규모의 지속가능금융을 2030년까지 제공한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글로벌 상업 은행들의 지속가능성, 기후 위험을 대비한 움직임은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EU 내 은행들은 우선적으로 2023년 3월까지 기후 관련 리스크를 적절하게 분류하고 이런 리스크가 영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를 완료해야 한다. 그 이후 2023년 말까지 거버넌스와 전략, 리스크 관리에 기후와 환경 관련 리스크를 포함시켜야 한다. 최종적으로 2024년 말까지는 자본적성성과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를 포함한 모든 규제를 충족해야 한다. 다만, 규제 당국내에서도 일방적인 움직임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확인된다. 지속가능성과 기후변화가 리스크 요인이지만 은행의 안전성과 건전성 등 펀더멘탈에 직접적인 영향을 초래한다고 연결 짓기는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다.

규제를 둘러싼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지만, 지속가능성 시장은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 올해 전쟁과 에너지위기, ESG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확대로 인해 개별 테마는 부진했다. 다만, 지속가능성 테마의 성장세는 부진을 겪었지만 3분기부터 다시 성장세가 나타나고 있다. 개별 규제에 대한 이견은 존재하겠지만 지속가능성과 기후 위험에 대해서는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투자심리 위축되는 글로벌 ESG 주식펀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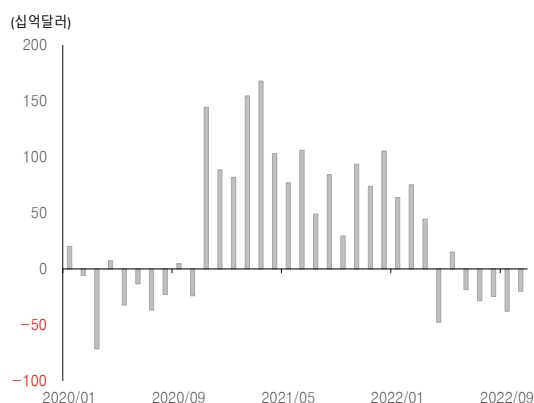
미국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이 진행되면서, 글로벌 주식펀드에서는 자금이 빠져나가기 시작하였다.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채권펀드에서도 자금 유출이 이어졌다.

하지만 글로벌 ESG주식펀드는 2022년 8월까지는 자금 유입 규모가 줄어들기는 했으나, 순유출로 돌아서지는 않았다. 하지만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로 기업의 비용 부담 증가에 따른 안티 ESG 분위기가 커지면서, 9월부터 글로벌 ESG 주식펀드에서도 자금이 빠져나가기 시작하였다.

글로벌 ESG주식펀드에 대한 우려에는 안티ESG로 ESG에 대한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것에도 영향을 받고 있다. 12월에는 뱅가드가 탄소제로를 위한 자산운용사 이니셔티브(NZAM)에서 탈퇴하면서, 탄소 제로에 대한 운용사들의 움직임이 주목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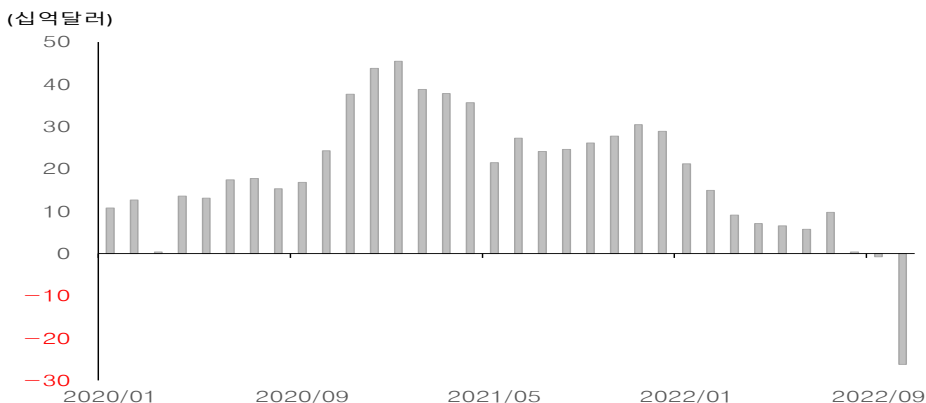
기후변화와 탄소제로에 대한 행동이 중요해지면서, 2020년 자산운용사들은 탄소제로를 위한 자산운용사 이니셔티브(NZAM)를 만들었다. 탄소제로를 위한 자산운용사 이니셔티브에는 뱅가드, 블랙락, 스테이트스트리트, 아문디, JP모간 등 주요 글로벌 운용사들이 참여한 바 있다.

글로벌 주식펀드 월간 순유출입



자료: Morningstar,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 ESG주식펀드 월간 순유출입



자료: Morningstar,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 ESG 펀드 성과

글로벌 ESG 펀드는 미국 주식펀드와 글로벌 주식펀드의 운용 규모가 크다. 세계 최대의 ESG 펀드는 1992년부터 ESG 펀드를 운용해 온 Parnassus의 'Parnassus Core Equity Investor'가 차지하고 있다. 그 뒤를 iShares와 Vanguard의 패시브펀드가 따르고 있다. ESG 펀드 중에서는 미국이나 전세계의 ESG 전략에 투자하는 펀드의 규모가 크다.

규모 면에서 상위 펀드는 미국에 설정된 펀드가 차지하고 있으나, 섹터 펀드나 업종 등의 펀드는 유럽에 설정된 경우도 많다.

특정 섹터나 업종에 투자하는 펀드 중에서는 기후변화, 수자원 관리 등 환경과 관련된 펀드의 운용 규모가 크다. 2차전지나 저탄소, 신재생 에너지 등 섹터 펀드는 장기 성장성이 기대되면서, 신규 펀드가 활발하게 만들어지고 있다. 투자자들이 신성장 산업에 해당하는 펀드나 ETF를 선호하는 분위이기 때문에, 관련 펀드의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미국 등 주요 글로벌 주식시장이 조정 국면을 거치면서, 거의 대부분의 주식 ESG 펀드 성과는 부진한 상태이다. 연초 이후 ESG주식펀드의 수익률은 -17.7%에서 -23.5%를 시현하고 있다. 하지만 2020년 이후 ESG에 속하는 업종이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에, 3년 연환산 수익률과 5년 연환산 수익률은 양호한 상태이다.

주요 글로벌 ESG펀드 현황

펀드명	유형	펀드규모 (십억달러)	수익률		
			연초이후	3년(연환산)	5년(연환산)
Parnassus Core Equity Investor	US Equity Large Cap Blend	24.0	-18.4	8.3	10.4
iShares ESG Aware MSCI USA ETF	US Equity Large Cap Blend	19.7	-19.9	8.1	9.5
Vanguard FTSE Social Index I	US Equity Large Cap Blend	13.7	-23.5	6.7	9.1
ACS Climate Transition World Equity TO	Global Equity Large Cap	11.0			
Nordea 1 - Global Climate & Envir BI EUR	Global Equity Mid/Small Cap	10.2	-19.4	10.3	9.0
iShares MSCI USA ESG Enh ETF USD Dist	US Equity Large Cap Blend	9.6	-20.9	7.6	
NT Wld Cstm ESG Eq Idx A EUR Acc	Global Equity Large Cap	9.6	-18.0	6.4	7.1
iShares MSCI USA SRI ETF USD Acc	US Equity Large Cap Blend	9.3	-17.7	11.1	11.9
Pictet-Water I EUR	Equity Miscellaneous	8.6	-22.1	5.7	6.7
Opcimmo LCL Opcimmo	Property-Direct	8.2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Category 1 유형별 자금 동향

Category 1	AUM	주간 순유출입	4주	52주	YTD
ESG 통합	159,941.9	67.9	852.6	21,817.0	18,276.3
환경	30,500.2	46.1	233.5	63.1	67.9
S&G (사회&지배구조)	4,972.5	13.1	25.6	806.5	695.2
합계	195,414.7	127.0	1,111.8	22,686.6	19,039.3

주: 2022.12.16 기준 / 단위: 백만\$

Category 2 유형별 자금 동향

Category 1	Category 2	AUM	1주	4주	52주	YTD
ESG 통합	전세계 ESG	8,429.1	4.2	-26.5	795.7	681.4
	선진국 ESG	133,201.8	-50.6	476.6	19,234.8	14,400.2
	신흥국 ESG	18,311.0	114.3	402.5	1,786.5	3,194.7
S&G	사회적 기준	4,972.5	13.1	25.6	806.5	695.2
환경	클린에너지	17,086.7	71.1	161.2	59.7	331.6
	수자원	6,528.2	1.7	10.9	-357.7	-449.8
	전기차/배터리	2,665.8	-6.6	-2.0	187.9	-112.3
	수소	691.6	1.6	16.6	276.9	266.0
	기타환경	590.6	1.9	16.4	40.7	9.4
	태양광	2,654.7	-25.4	26.2	-124.0	34.4
	풍력	282.6	1.8	4.4	-20.4	-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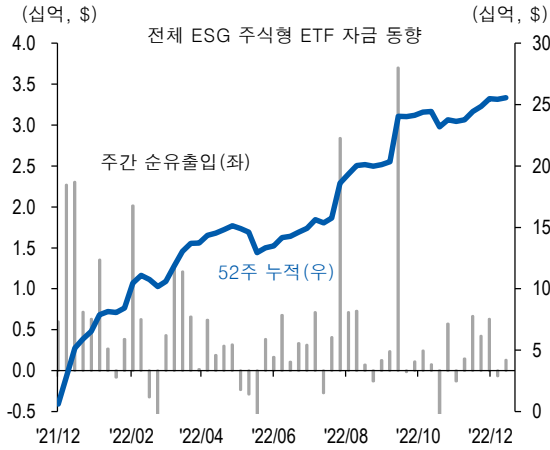
주: 2022.12.16 기준 / 단위: 백만\$

유형별 ETF 자금 동향 Com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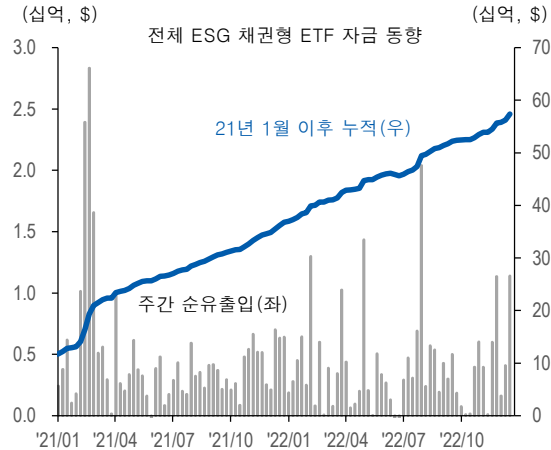
전 카테고리에서 자금 유입 확인

- ESG 통합, 환경, S&G 테마에서 모두 자금 유입이 확인됨. ESG 통합 테마와 환경 테마의 자금 유입 강도는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나타남
- Flow 상으로는 선진국 대비 신흥국 선호 현상이 확인됨.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전반적인 신흥국 투자 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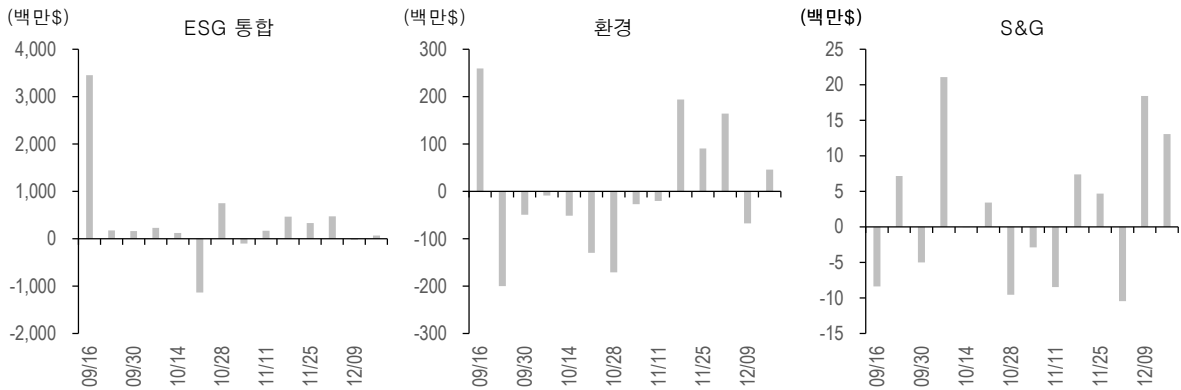
ESG주식형 테마로의 자금은 유입전환됐으나 강도는 약화



ESG채권형 테마로의 자금 유입 강도가 큰 폭으로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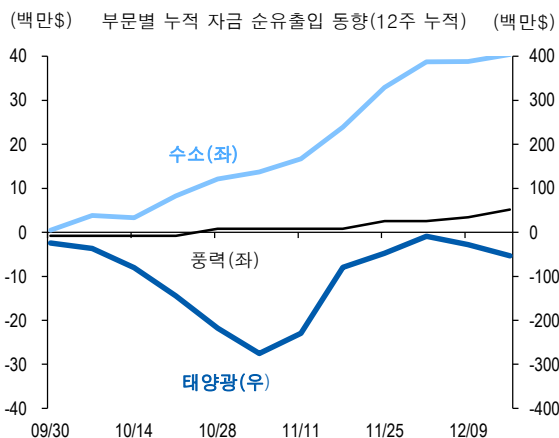
12주 주간 유출입 동향. 전 테마에서 자금 유입이 확인되고 있으나 강도 측면에서는 차별화 진행. S&G 테마 2주 연속 강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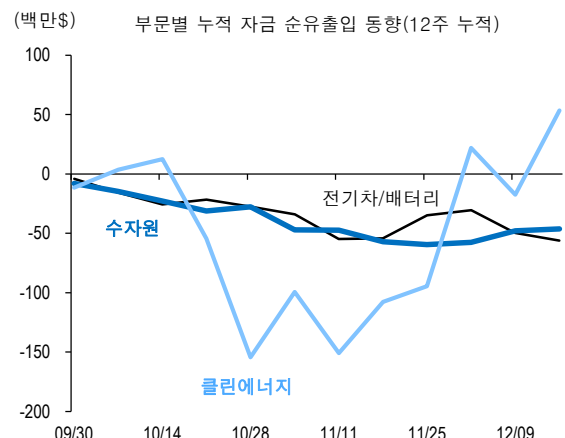
ESG 테마 자금 동향



수소 테마의 Flow 건조한 반면, 태양광 테마의 부진 지속



클린에너지 테마의 약진과 전기차/배터리의 부진 확인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ESG ETF - 순유입 Best&Worst

Best5	유형	지역	펀드/ETF명	총자산	주간 순유입	4주	52주	YTD
1	선진국 ESG	미국	iShares ESG Aware MSCI USA ETF	19,680.9	119.8	40.0	179.7	-277.4
2	클린에너지	미국	Invesco WilderHill Clean Energy ETF	936.3	83.3	102.0	-18.7	-3.5
3	신흥국 ESG	아일랜드	JPM Global EM RshEnh Eq ESG ETFUSDAcc	809.5	68.9	117.4	333.7	333.7
4	선진국 ESG	아일랜드	iShares MSCI World ESG Scrn ETF USD Acc	1,572.8	16.4	21.7	241.0	151.6
5	클린에너지	아일랜드	iShares Global Clean Energy ETF USD Dist	6,081.9	16.2	28.8	735.6	802.8

Worst5	유형	지역	펀드/ETF명	총자산	주간 순유출	4주	52주	YTD
1	선진국 ESG	미국	iShares ESG Aware MSCI USA SmallCap ETF	1,322.6	-124.5	-105.4	306.5	223.7
2	선진국 ESG	아일랜드	iShares MSCI World SRI ETF USD Dist	1,298.9	-67.9	-47.2	264.6	219.3
3	신흥국 ESG	미국	iShares ESG Aware MSCI EM ETF	3,716.1	-30.5	-61.9	-1,095.5	-899.7
4	태양광	미국	Invesco Solar ETF	2,654.7	-25.4	26.2	-124.0	34.4
5	클린에너지	미국	First Trust NASDAQ® Cln Edge GrnEngyETF	1,775.6	-16.6	-27.8	-452.6	-395.5

주: 2022.12.16 기준 / 총자산, 순유출입: 백만\$

ESG ETF - 수익률 Best&Worst

Best5	유형	지역	펀드/ETF명	총자산	주간 수익률	4주	52주	YTD
1	수소	미국	Global X Hydrogen ETF	38.4	3.9	4.0	-40.6	-39.9
2	선진국 ESG	일본	Listed Index Fund Nikkei ESG REIT	238.6	1.9	1.6	-4.5	-5.1
3	수소	캐나다	Horizons Global Hydrogen ETF	3.3	1.5	-0.2	-37.5	-36.6
4	클린에너지	미국	Global X CleanTech ETF	124.7	0.7	-0.7	-12.0	-10.6
5	전세계 ESG	캐나다	TD Morningstar ESG International Eq ETF	4.3	0.2	3.8	-12.7	-13.6

Worst5	유형	지역	펀드/ETF명	총자산	주간 수익률	4주	52주	YTD
1	사회적 기준	미국	SoFi Social 50 ETF	12.4	-5.3	-8.5	-44.2	-45.1
2	전기차/배터리	룩셈부르크	Lyxor MSCI Ftr Mby ESG Ftd (DR) ETF Acc	273.8	-5.3	-9.5	-27.0	-27.8
3	클린에너지	미국	First Trust NASDAQ® Cln Edge GrnEngyETF	1,775.6	-4.9	-9.9	-21.0	-23.4
4	신흥국 ESG	룩셈부르크	X MSCI EM LATAM ESG SWAP 1C	110.6	-4.4	-9.0	3.7	7.1
5	선진국 ESG	미국	Nuveen ESG Mid-Cap Value ETF	315.2	-4.2	-4.4	-14.3	-17.1

주: 2022.12.16 기준 / 총자산: 백만\$, 수익률: %

펀드 플로우 Comment

신재생에너지 관련 ETF 성과 양호

- 대표적인 태양광 테마 ETF인 'Invesco Solar ETF'는 3주 연속 순유입 이후 2주 동안 순유출. 'Invesco Widerhill Clean Energy', 'iShares Global Clean Energy ETF USD Dist' 등 클린에너지 ETF 순유입
- 수소클린에너지 등 신재생 에너지 관련 ETF는 최근까지부진한 성과를 보였으나, 전주에는 반등하면서 수익률 상위 기록. 다만 연초 이후 수소 관련 ETF는 -35%가 넘는 저조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 점을 참고할 필요
- 미국 대형주 ESG ETF로는 자금이 들어왔으나, 미국 소형주 ESG ETF에서는 자금 유출

해외 친환경 ETF에 포함된 국내 종목 List

코드	종목명	시총	포함 ETF 수	분류	주간 수익률	4주	52주	YTD
A213420	덕산네오룩스	9,895	1	소재	4.5	0.8	-27.7	-29.2
A336260	두산퓨얼셀	22,235	2	수소	4.3	-3.3	-34.7	-29.3
A112610	씨에스윈드	31,418	4	풍력	3.3	-0.7	17.1	13.4
A047310	파워로직스	1,797	1	전기/수소차	3.0	-0.6	-28.5	-35.5
A082920	비츠로셀	2,919	1	2차전지	2.7	0.4	-2.5	-5.6
A009830	한화솔루션	93,153	1	태양광	2.4	-4.1	37.2	37.2
A322000	현대에너지솔루션	6,462	1	태양광	2.1	-6.8	180.8	169.6
A051910	LG화학	446,850	3	2차전지	0.8	-7.2	-3.5	2.9
A018880	한온시스템	45,106	1	전기/수소차	0.6	-2.9	-36.9	-37.2
A005930	삼성전자	3,552,021	1	IT	0.0	-3.1	-22.8	-24.0
A100130	동국S&C	2,903	1	풍력	0.0	-5.4	-3.1	-5.0
A006400	삼성SDI	444,907	5	2차전지	-0.5	-6.8	-1.1	-1.2
A018000	유니슨	2,200	3	풍력	-0.6	-7.2	-35.7	-36.1
A247540	에코프로비엠	97,997	2	2차전지	-1.2	-4.9	-19.1	-19.0
A012330	현대모비스	191,399	1	전기/수소차	-2.4	-5.8	-15.8	-20.2
A005380	현대차	339,732	2	전기/수소차	-2.8	-5.4	-22.4	-23.9
A064960	SNT모티브	6,427	1	전기/수소차	-3.4	-0.9	-0.2	-6.6
A066970	엘앤에프	68,087	2	2차전지	-3.6	-10.9	-4.4	-14.8
A020150	일진머티리얼즈	25,960	3	전기/수소차	-3.6	-8.2	-53.9	-58.3
A011210	현대위아	14,522	1	전기/수소차	-3.6	-11.0	-29.3	-33.2
A373220	LG에너지솔루션	1,127,880	1	2차전지	-4.0	-15.9	-	-
A000270	기아	252,947	1	전기/수소차	-4.1	-4.3	-24.7	-24.1

주: 2022.12.19 종가 기준

국내 종목 Comment

수주 모멘텀이 견인한 수소, 풍력 관련주

- 일부 수소 관련주는 국내 연료전지 시스템 공급계약 체결 모멘텀으로 상승. 올해 수주는 가이던스를 하회했지만, 최근 중국향 신규 수주에 이어 정책 지원 이슈 해소가 확인되는 점은 긍정적
- 일부 풍력 관련주도 미국 해상풍력 타워 공급계약을 체결. 내년부터 IRA 관련 시장확대 효과가 본격화되는 점도 관련주 주가 흐름에 긍정적으로 작용

기업 ESG 뉴스

기업명	이슈
삼성 바이오리직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삼성바이오리직스는 회사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협력사들과 ESG 경영 역량 강화를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 삼성바이오리직스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공급망 전 분야 모니터링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인권, 안전을 위한 경영 등 지역 사회 발전에도 기여할 계획
SKT	<ul style="list-style-type: none"> SKT는 다음 달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에서 SK 계열사들과 함께 '그린 ICT' 전시를 선보일 계획 해당 전시에서 2030년까지 약 2억 톤의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도심항공교통(UAM), AI 반도체, 신재생 에너지 가상 발전소(Virtual Power Plant) 등의 기술 및 제품들을 소개할 예정
포스코 인터내셔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우수한 기술력 대비 네트워크 기반이 약한 강소기업의 수출 시장 개척 지원을 위해 한국수출입은행과 '공급망 안정화 및 상생을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 해당 협약은 국내 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내 경쟁력 강화, 대·중소기업 간 상생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 한국수출입은행은 수출 강소기업의 매출 채권을 조기에 매입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을 12월 개시할 계획
롯데제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롯데제과는 710톤 규모의 연간 플라스틱 사용량 감축, 영등포 공장 히트펌프 도입 등의 내용을 포함한 '2021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여 올 7월까지 최근 3개년 ESG 경영 성과를 발표 해당 보고서는 'GRI' 스탠다드의 국제 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한국경영인증원의 검증을 통해 정확도와 신뢰성을 확보. 롯데제과 ESG 팀은 지속적인 ESG 경영 성과 공개를 통해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강화할 계획

기관&정책 ESG 뉴스

기관명	이슈
유럽연합 (EU)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럽연합(EU)은 유럽 내 생산 제품과 다른 지역 생산 제품의 탄소 배출 비용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제도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무상 배출권 할당을 2034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결정 또한 탄소배출권거래제(ETS) 적용 산업들을 대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을 이진 43%에서 62%로 상향 조정.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는 2.2%에서 2024-2027년 4.3%, 2028년부터 4.4%로 가속화
G7	<ul style="list-style-type: none"> G7 주요 7개국은 산업별 탈탄소화를 통한 녹색성장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15일 기후클럽 결성에 합의하였으며 주요 목표, 참여 기준, 단계별 계획을 포함한 '위임 사항(terms of reference)'을 승인 G7 의장국 독일은 6대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화를 의미하는 기후 중립을 위해 각국 녹색 전환 지원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G20의 참여 또한 권유할 것이라 발표
대한민국 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한민국 정부는 한국회계기준원 산하 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를 설립하여 국제 ESG 공시기준을 기반으로 한국형 ESG 공시기준안을 마련하기로 결정 또한 KSSB는 ISSB 공시기준과 관련된 국제적 논의에 대응하고 ISSB의 공식 자문기구인 SSAF(Sustainable Standards Advisory Forum) 회원국 가입을 추진할 예정
기술보증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보증기금은 탄소중립(E), 국민행복(S), 공정세상(G)을 3대 전략 방향으로 설정하고 30개 세부 과제의 추진을 위한 '중소기업과 함께하는 2030 ESG 경영 추진계획'을 수립 해당 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기후보증 10조 원 지원, 클린플러스보증 3조 원 지원, 소셜벤처기업 5천 개 발굴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ESG 경영을 적극 지원할 예정

모피 반대 운동

1980년대 동물 가죽이나 털을 활용한 모피를 만들기 위하여 동물들이 비참하게 도살되는 현실에 대한 비판이 커지기 시작하였다. 동물보호협회 등을 중심으로 한 모피 반대 운동이 사회운동으로 확대되면서, 패션업계에서도 모피 사용에 대한 여러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모피에 반대하기 위하여 모델들이 나체 시위를 하거나, 패션쇼에 동물보호협회 회원이 난입하는 등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이루어졌다.

밍크코트는 밍크 50~200마리, 여우코트는 여우 11~45마리가 필요하다. 모피를 만들기 위하여 희생되는 동물의 숫자가 큰 것도 문제지만, 모피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동물들을 잔인하게 희생시키는 것도 문제가 되었다. 어미 양을 도살하여 뱃속에 있는 새끼의 피부를 벗기거나, 산 채로 동물들의 가죽이 벗기는 등 모피 생산 과정에서 동물들의 고통은 고려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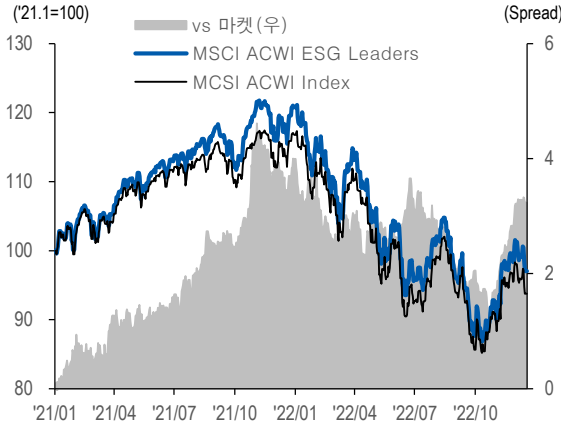
이탈리아의 명품 브랜드 조르지오 아르마니는 2016년 수년간의 기술 발달로 동물 학대에 대한 대안이 나오고 있으며, 향후 모피 사용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였다. 2018년 샤넬은 동물 가죽 사용에 윤리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악어와 도마뱀, 뱀 등의 동물 가죽 사용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인공 소재를 사용하여 모피와 유사한 제품을 개발하는 데 역량을 모으기로 하였다. 구찌도 환경과 동물을 위해 더 나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2018년 S/S 시즌부터 모피를 쓰지 않겠다고 발표하였다. 남아있는 동물 모피 제품들은 자선 경매를 통해 처분하여, 수익금은 동물보호단체에 전달하였다. 이외에 베르사체, 캘빈클라인, 휴고보스 등 많은 패션업체가 모피 사용 중단을 발표하였다.

모피 반대 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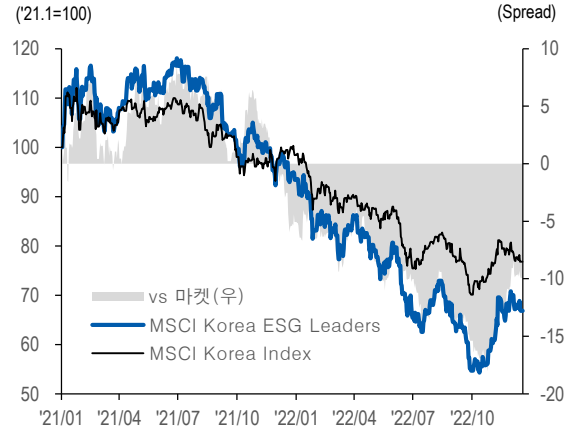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경기 침체 우려 확대, 증시 부진 지속. ESG는 상대적 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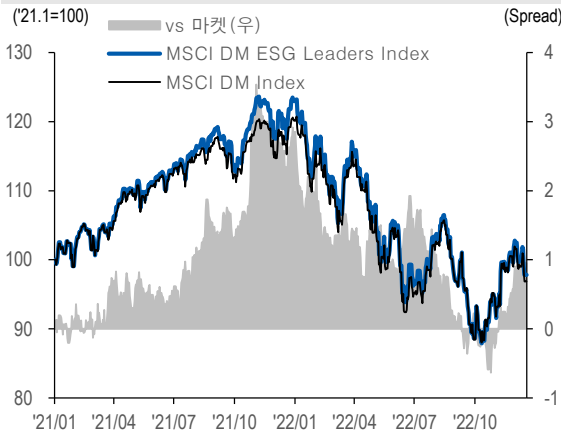
자료: MSCI,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모멘텀 및 이벤트 부재로 뚜렷한 방향성 없는 장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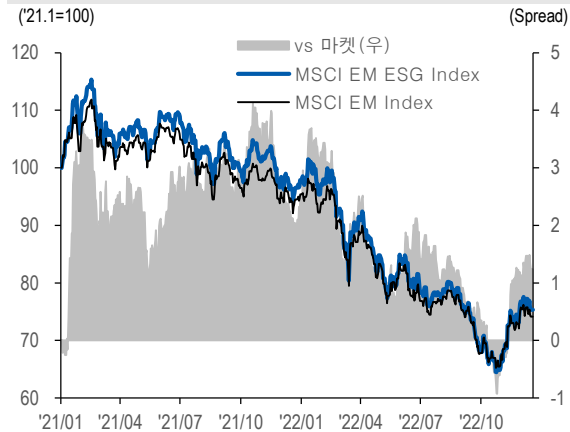
자료: MSCI,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미국 CPI, FOMC 등의 이벤트를 소화하며 증시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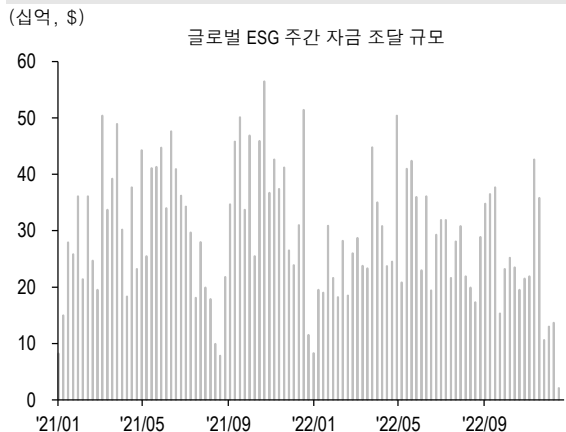
자료: MSCI,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중국 경기 회복 기대와 코로나 확진자 증가 등 이슈 혼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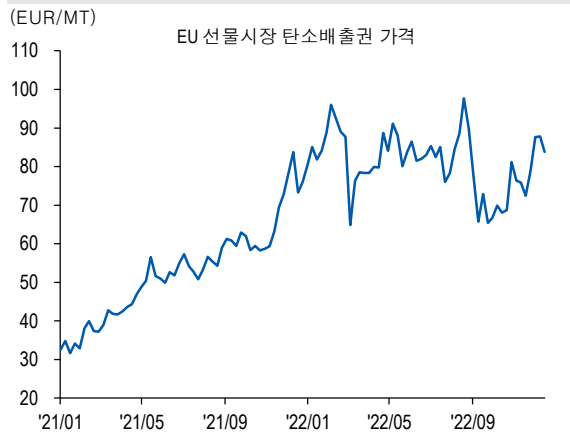
자료: MSCI,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ESG 자금 조달 시장, 21억 달러 조달(12월 3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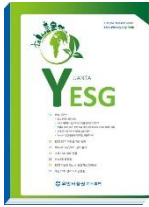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유럽 탄소배출권 가격, 83.82유로(12월 3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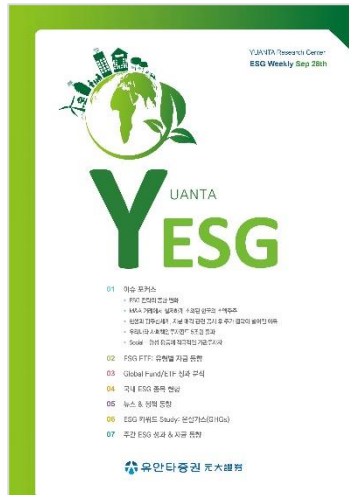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Yuanta ESG Weekly 발간 기록

발간일자	컨텐츠
2022.07.19	YESG Weekly Vol. 36 • 재생에너지 부문에서 확인되는 긍정적인 소식들 / DB, 5월 11일 지주회사 전환 통보 수취
2022.07.26	YESG Weekly Vol. 37 •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ESG 펀드 / 대체육 시장 확대
2022.08.02	YESG Weekly Vol. 38 • 국부펀드와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확대되는 ESG 투자 / 상법382조의 3항 개정 논의 필요
2022.08.09	YESG Weekly Vol. 39 • 국내 ESG 공시 적용을 위한 논의 / ESG 펀드 안에서 대형 펀드의 영향력 증가
2022.08.23	YESG Weekly Vol. 40 • 미국 IRA 시행, 단기로 그치지 않을 환경 테마의 변화 / 후성 그룹의 성장 동력은 후성폴란드
2022.08.30	YESG Weekly Vol. 41 • 강화되는 녹색 규제, 자금 조달 시장의 냉각 / 2분기 글로벌 지속가능 펀드 순유입 규모 감소
2022.09.06	YESG Weekly Vol. 42 • 탄소중립에 다가서기, 2023 탄소중립 전환 예산 분석 / SK디스커버리, SK케미칼 지분 5.22% 공개매수
2022.09.20	YESG Weekly Vol. 43 • ISSB의 지속가능성 공시 초안, 종합 의견 청취 결과 / Anti ESG
2022.09.27	YESG Weekly Vol. 44 • 어려워지고 있는 SDG 달성, 공조가 필요 / 금융위, 일반주주 권익 제고를 위한 2가지 제고방안 발표
2022.10.18	YESG Weekly Vol. 45 • 경제 성장과 기후 대응에 대한 IMF의 분석 / 스웨덴 연기금(AP4)의 ESG
2022.10.25	YESG Weekly Vol. 46 • 스코프3, 유연성과 함께 의무화의 방향으로 /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논의 개시
2022.11.01	YESG Weekly Vol. 47 • 다가온 COP27, 먼저 살펴보는 주요 의제 / Social과 아동 노동 착취
2022.11.08	YESG Weekly Vol. 48 • 미국의 중간선거와 ESG 투자 우려 / 이사회 전문성 확보에 대한 담론
2022.11.15	YESG Weekly Vol. 49 • IOSCO의 권고, 탄소배출권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 개입 필요 / 2022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보다 1% 증가
2022.11.22	YESG Weekly Vol. 50 • 다소 실망스러운 COP27 결과 / Alphabet에 대한 주주 캠페인
2022.12.06	YESG Weekly Vol. 51 • 11월 빅 이벤트 이후, 최근의 변화들 / 우리나라 ESG주식펀드는 크게 줄어들지 않음
2022.12.13	YESG Weekly Vol. 52 • EU 항공사 탄소배출권 무상할당 폐지 / 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현물출자 주식의 과세특례 유예기간 도래

주: 지난 호의 제목([YESG Weekly Vol.#](#))을 클릭하시면, 세부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함. (작성자: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당사는 동 자료를 전문투자자 및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본 자료는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 (Environment) · 사회 (Social) · 지배구조 (Governance)와 관련된 리포트로 친환경 경영, 사회공헌, 공정거래, 주주총회 안건 등 장기적 관점에서의 기업가치와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주제 및 내용에 관련한 자료입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의 투자를 권유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자료입니다. 본 자료는 금융투자분석사가 신뢰할만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와 정보에 의거하여 만들어진 것이지만, 당사와 금융투자분석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 자료를 참고한 투자자의 투자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자료는 당사 투자자에게만 제공되는 자료로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송 인용 배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